

2011년
10월 15일
제 9 호



社友会報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 발행처 사단법인 MBC사우회 100-702 서울시 종구 청동 22 TEL 02-722-7416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강영구 • 편집인 이연현 • 편집장 한박무

MBC창사 50주년기념 1박2일 OB 초청 캠프

오늘의 MBC가 있게한 선배들의 노고와 현신에 감사 마음 전달

10/20~21 춘천 엘리시안 강촌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퇴직사우를 초청해 1박2일의 캠프행사를 갖는다. MBC는 선배들의 노고와 현신 덕분에 MBC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로 우뚝섰다면서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MBC OB초청 캠프는 10월20일(목)과

옻늘이, 수목원 산책, 여흥놀이
행운권추첨등 푸짐한 행사

간편한 복장에 세면도구등은 챙겨야

21일(금) 이틀동안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리며 옻늘이, 수목원 방문, 경봉 국민의숲 코스등을 산책하게 된다. 또한 여흥및 행운권 추첨을 통한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MBC는 퇴직사원 전원에게 이미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참석여부도 개인별로 통보받았다. 참가를 희망한 퇴직사우들은 간편 복장에 운동화, 세면도구 등을



엘리시안강촌 리조트가 보인다. 묵은얼굴 묵은얘기 꽃 피우며 MBC미래를 얘기하자

가지고 가야 한다.

출발시간은 오전 10:30이며 여의도 방송센터와 일산드림센터, 지하철 양재역 3번출구 등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문의사항이나 변동사항은 02-789-2224 MBC총무부 OB캠프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진주-창원MBC 합병 'MBC경남' 출범

김종국사장, 서부 경남 주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방통위, 8월 8일 합병 의결

진주MBC와 창원MBC가 통합돼 9월1일(목) "MBC경남"으로 새출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8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MBC와 창원MBC의 합병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진주MBC는 43년간의 방송을 마감하고 역사속에 묻히게 됐다.

새롭게 탄생한 "MBC경남"은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작

인력 150여명에 매출액 5백여억 원으로 부산MBC와 비슷한 규모를 이루게 됐다. "MBC경남"은 15%에 머물렀던 지역 프로그램의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제작비도 매출 대비 10% 이상을 투입해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김종국 MBC경남 사장은 "그동안 같은 경남권이면서도 시청권역이 달라 한정된 정보만 접했던 서부 경남 주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 법인 MBC C&I 출범

MBC프로덕션과 미디어텍 통합

MBC프로덕션과 MBC미디어텍의 통합법인인 'MBC씨엔아이' (MBC C&I, 사장 황희만)가 8월16일 출범했다. 두 회사의 통합은 내-외부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콘텐츠 및 미디어 서비스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추진됐다. MBC프로덕션과 MBC미디어텍은 1991년 1월 창시이래 20여년간 콘텐츠 제작과 유통, 방송제작기술과 방송 IT사업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과시해왔다.

퇴직사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OB 초청 캠프 개최에 즐음하여

퇴직사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김재철입니다.

높아진 하늘과 선
선해진 바람으로 완
연한 가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올해는 MBC가 창
사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61년 MBC 라디

오로 개국한 이래 MBC는 50년의 역사를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선배님들의 수많은 노고와 현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 것 역시 선배님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며 미래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주신 덕분입니다. 올해 MBC는 '나는 가수다' 등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률과 영향력에서 1등을 탈환했고, K-POP 프로그램을 선도하면서 한류열풍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MBC CHINA, 중동아프리카 지사, 중남미 지사 등을 연이어 개설해 콘텐츠 해외 판매에서 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눔 프로그램을 확대해 감사하는 MBC, 함께하는 MBC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도 MBC가 늘 시청자와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를 주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내 평안과 건강 그리고 사우회의 무한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주)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재철

경축

날마다 즐거운 꿈을 심으며

새 역사 가꾸는 우리의 보람

MBC 문화방송 빛의 메아리

"MBC 창사 50주년을 축하 합니다"

(사)문화방송사우회 회원 일동





차 한 잔 '선진 방송 식견을 MBC 개국에 다 쓴아 부었어 ...'



1925년 신의주 출생
1957년 고려대 영문과 졸업
1961년 문화방송 방송부장
1973~76년 KBS부사장
1984~89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989~93년 MBC사장
2000~02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1989년 제1회 프로듀서협회 특별공로상
1979년 금관문화훈장

저서/ 우리방송100년

MBC 창사 50주년의 첫발은 1961년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번지 동일가구 건물5층 옥상 MBC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정규방송 개시 전파가 발사되면서 시작됐다.

MBC-R개국준비는 불과 11개월. 우리나라 첫 라디오 상업 방송인 부산문화방송(59년 설립)이 밑바탕이었기에 가능했다.

MBC 탄생 신화의 한 가운데 있었던 최창봉 전 사장을 만났다.

50년대 말에 미국 유학 방송제작 연수 받아 준비된 방송인생 시작,

'PD 1호' '방송계 큰 어른'으로 자리

그는 방송개국 전문가다.

MBC라디오, KBS TV, 라디오 동아방송을 개국 했고, 그전 1956, 6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인 HLKZ 종로 TV방송국이 첫 전파를 쓸때 참여했다. 종로 TV방송국은 세계에서 15번째로 일본 보다 4년 늦었다. KBS TV보다는 5년 앞섰다.

라디오, TV방송국이 설때마다 왜 그에게 손짓하고 그를 스카웃, 심지어 협박하다시피 하며 개국공신의 반열에 올려 놓았는가? 고려대 영문과 시절 49년 가을, 대한민국 제1회 전국 연극연예대회에서 고려대 우승의 견인역을 한 연극학도였던 그는 1951년 1.4후퇴때 육군소위로 입대한다. 영어 턱력에 53년 중위시절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에 있는 미

육군 고급부관학교에서 6개월간 위탁교육을 받는다.

그 때 난생처음 TV라는 걸 처음봤고, 그 후 방송에 대한 신진 방송 식견을 갖추고 돌아와 국방부 정훈국 대위시절인 54년 말부터 군방송을 맡는다.

운명같은 방송과의 첫 만남이다.

장군 홍화 일색이던 그 딱딱한 군 방송은 오후 6:00~7:00을 음악과 서울스케치 등의 프로그램을 섞어 편성을 확 바꿨다.

1년여 방송경험 후 55년 10월 제대 한다. 미국 RCA와 합작회사인 종로

TV의 개국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TV의 개국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56년 6월 우리나라 첫 TV방송국을 차리고, 57년 美 국무성 초청으로 보스턴 대 외국인 방송훈련 속성 코스에서 연수를 받는다. 3개월 수업 후 ABC, NBC, CBS 등의 뉴욕 스튜디오에 배치돼 뉴스, 드라마, 쇼, 교양, 퀴즈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현장 연수를 받으며 진행, 카메라워킹, 스튜디오 세트, 캐스팅, 분장 등 여려 방송노하우를 익혔다. 심지어 프로그램 담당PD집에 까지 찾아가 배우기도 했다.

그는 美 국무성의 여행 프로그램 중간에도 미시 간대에서 TV연출자와 프로그램기획자가 강의하고 현역방송인이 참여하는 섬미 워크샵에 등록해 억적스레 배운다.

이 때가 2차대전의 전쟁무기 관련 전자기술이 TV산업에 들어와 미국이 TV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시대다. TV의 모든 것을 본 것이, 준비된 방송인이 된 시점이 그가 30대 초반 일 때다.

돌아와 종로 TV에서 미국 연수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원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방송국이 개국할 때면 "왜 최창봉인가?"를 알만하다.

'우리나라 PD 1호' '방송개국 전문가' '방송계 큰 어른' 그의 별칭과 존칭이 탄생한 배경이다.

종로 1가 종각옆에 있던 종로TV가 59년 2월 화재로 폐쇄된 후 그는 공보부 산하 방송문화 연구실장으로 옮긴다.

당시 연구실에는 서규석(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상희(전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정순일(전 MBC편성국장, 방송위원회 위원) 이윤하(전 동아방

- '방송개국전문가' 최창봉 전 사장에게 듣는다.

송 편성과장(씨 등도 함께 일 했다.

59년 김상용 사장이 창업 한 부산문화방송 개국 때 같이 일하자고 갖은 회유를 다했어도 끝내 거절했는데 이번에 또 서울 민방 개국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60년 말 당시 부산문화의 정환옥과 김영출이 나섰다. 이들은 부산문화방송을 창업한 공신들이다. 방송문화연구실장 사표를 내고 61년 1월 1일자로 최창봉 방송부장 인사가 발령된다.

동일기구 5층 옥상에 부산 스튜디오 설치작업을 했던 스텝들을 초청해 스튜디오를 만들고 부산 문화방송의 편성, 기술, 제작등 분야에서 모두 18명의 사원을 서울로 발령, 개국준비를 서둘렀다.

61년 2월 21일 '서울 민간방송 주식회사' (사장 김지태)로 설립등기 한다.

그 후 회사이름도 '한국 방송 주식회사'로 바꿨

61년 1월 1일 최창봉 방송부장 발령

정환옥 김영출 등 부산 문화 방송팀 앞장

4월엔 차범석, 정순일, 최계환 등이 합류

다가 다시 '한국 문화방송 주식회사'로 개명했다.

4월 말 차범석, 정순일, 최계환, 이호보 등이 방송준비요원으로 들어왔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다.

창사 수습사원 - 그때의 명칭은 강습생 - 들의 면모를 보자

61년 5월 28일 - 1기 ANN 강습생 합격자

정기문, 이장우, 김경운, 김성우, 김영익, 장인숙, 홍종신, 김영자, 박진현, 원종관

6월 8일 - 1기 편성요원 방송기자 강습생 합격자 편성/최수진, 김의경, 천승준, 정영식, 정공채,

김관철, 김선희, 김경순, 정계순

방송기자/형진한, 김용수, 주옥연

HLKV 문화방송은 처음엔 8월 30일에 개국하려 했으나 송신기 도입지연 등으로 10월 10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12월 2일로 늦춰져 오늘이 생일이 됐다.

그는 방송에 미쳐 살아왔다.

그의 인생 모두가 방송이요 방송인이고 방송철학으로 얹히고 짜여있다.

글/한박무 사우회보 편집장

장인-장모상에도 사장명의 조화

MBC 경조규정 확대실시

8월8일 부터 시행

사우회 회원을 포함해서 퇴직사우 배우자가 부모상을 당했을 때 MBC 사장 명의

의 조화가 배달되고 있다.

MBC는 경조규정 일부를 확대-개정해 서 퇴직사우가 장인-장모 또는 시부-시모상을 당했을 때 사장 명의의 조화를 보내기로 하고 지난 8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1월 11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우회는 12월 송년보임때 새로 만든 2012년도 회원수첩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 수첩에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11월11일(금)까지 원고가 마감돼야 함으로 그 이전에 바뀐 주소를 알려 줄것을 바라고 있다.

참고로 MBC사우회 노로명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정동)'이다.

사우회 사무처는 회원들로부터 MBC 출입증 발급을 신청받아 1주일 단위로 매주 화요일에 본사 총무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후 약 열흘뒤에 출입증이 발급된다.

이 출입증으로는 본사 방송센터와 일산 드림센터를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있다.

2011년에 퇴직한 사원은 본인이 직접 본사에 신청해서 출입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사 출입증 발급해 드립니다

여의도와 일산센터 자유롭게 출입

MBC가 퇴직사우 예우 차원에서 본사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으로 MBC 출입이 빈번한 회원은 반명함판 사진 한장을 첨부해 사우회 사무처에 신청하면 된다.

사우회 올 하반기 행사 일정 확정

송년의밤 12월15일(목) 마포 가든 호텔서 개최

등산10월26일(수) – 바둑11월17일(목)

사우회가 주관하는 올 하반기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이 일정에 따르면 가을철 등산대회는 10월26일(수)에 실시된다. 오전 10시에 구기동 현대빌라앞을 출발해 구기동터널을 통과한 뒤 각황사까지 올라갔다가 점심식사 장소인 토속집으로 내려오게 된다.

11월에는 원로회원 산업시찰이 11월4일(금)에 있고 회장배 바둑

골프대회, 임봉주 첫우승 임재룡 준우승 감투상은 이현규

김포 봉성리 수로에서 낚시대회 30여명 참가

대회는 11월17일(목)에 실시된다. 그리고 올 마지막 행사인 송년의 밤 행사는 12월15일(목)에 마포 가든호텔에서 치르게 된다.

이에 앞서 10월7일(금)에는 골프대회, 10월13일(목)에는 낚시대회가 열려 회원들간의 유대를 다지고 친목을 나누었다.

충주 중원골프클럽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는 임봉주(기술)회원이 첫 우승을 차지했고 임재룡(기술)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근접상은 이걸범(폐지), 행운상은 김구수(기술), 감투상은 이현규(보도)회원에게 돌아갔다.

납회를 겸한 낚시대회는 30여명의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포 봉성리 수로에서 열려 월척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사 사람!

이제 ‘그랜마 송’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



▶70대부부 아내 박찬열과 글쓴이 조석영
1967년~1998년까지 MBC 아나운서, 비서실, 기획실, 연수실 근무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올해 일흔 두 살이 되도록 성가대에서 둘째 내기 아내와 함께 성가를 불러 오고 있는 내게 “KBS TV2 남자의 자격 52세 이상 노년 합창단원 모집” 스포트는 눈에 번쩍 뜨이는 반가운 뉴스라, 마침 소속 극단에서 새롭게 시작 할 연극 캐스팅 결정 바로 전날인 아내에게 연극은 잠시 접고 우리 한번 이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자고 설득해 4월말 지원서를 제출했다.

5월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우리 부부가 서류 심사에 떨어졌나보다 하고 낙망하던 차에, 6월 초순 얘기가 기다리면 오디션 참가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3,000명 지원자 가운데 200명만 오디션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 노래실력 한번 발휘해볼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꿈을 접어야 했던 노년 동지들이 무려 2,800명이나 됐던 것이다.

사실 우리부부는 일생 노래부르기를 계속해왔다. 아내 박찬열은 8여자사범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24세 되던 해 1963년 서울시립가무단 합창대원으로 활동하던 때 혹적인 음색의 메조소프라노다.

그 후 내 아내가 돼 일생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문득 57세 되던 해에 성우학원, 연극교실을 거쳐 연극무대에 오르더니 12년 뒤인 69세 때 2008년 윤호진 연출 뮤지컬 ‘러브’에 캐스팅 되면서 프로세계로 뛰어든 이후 2010년에는 대형 뮤지컬 ‘빌리엘리엇’의 할머니 역으로 캐스팅되는 등 애심만만한 늦깎이 뮤지컬배우 할머니고, 나는 25년여 상도동 양재동 성당 성가대에서 노래하면서 작년부터 남성 시니어합창단에 나가며 활동 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매우 평범한, 그러나 나아에 비해서는 조금 짙고 힘찬 목소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의 할아버지다.

나는 오디션에서 조두남 작곡 곡 ‘산촌’을 노래했다. 내 노래가 끝나자 바로 와! 소리에 이어 박수. 그리고 이윽고 모두가 기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내 노래가 이렇게 대접받다니) 놀랍고 반갑고 고마웠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방송, 재방송되면서 2주일 뒤 나는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아내 박찬열 차례다.

곡목은 뮤지컬 ‘빌리엘리엇’에서 나오는 Grandma Song(할머니 노래). 이노래엔 사연이 있다.

1910년 8월 한국 공연 당시 공개 오디션에서 구름같이 많은 인재들을

- 전 아나운서 조석영씨 부부의 ‘청춘합창단’ 오디션 스토리

제치고 화려하게 캐스팅 됐으나 6개 월간 200여회 공연중에 한번도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 전담배우 평크가 없었다. – 아픈사연이 있는 그 런 노래다.

드디어 아내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무대에 서고 싶었던 뜨거운 열망을 모두 담아 뮤지컬의 한 장면을 열연 했고, 그것은 오디션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열정 넘치는 공연에 가까웠을까 생각하면서.” “조형, 뭘 노랠 그렇게 잘해? 만능 스포츠맨인줄은 알았지만 참 대단하네.” “두 분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이야.” “두분 눈물나게 아름다웠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하루 아침에 유명 연예인(?)이 됐다. 길을 걸어도, 지하철을 타도, 쇼핑을 해도 모두들 알아보고 반기워줬다. 방송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번 오디션에 도전했던 것은 백번 잘한 일이었고 그 성과도 내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노래란 음률으로 하는 것이다. 목과 입으로만은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없다. 온 몸이 동원되어야 깊은 소리 힘찬소리 끊고 높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기본적인 기교만으로는 듣는 이에게 어필하는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성악은 체력싸움이다. 늘어 갈수록 결국은 힘의 문제가 된다.

지금의 나로서는 앞으로 10년은 더 노래할 수 있도록 나는 노래 자체보다는 운동과 체력관리에 더욱 많은 시간을 내 삶의 시간표에 할당해 나갈 것이다.

TV 덕에 하루 아침에 슈퍼스타

늦깎이 뮤지컬 배우 할머니와 성가대로 내공 다진 할아버지,
10년 더 노래하려 체력단련 매진

옅은 평생 명에 처럼 가져갈 뻔했던 Grandma Song을 마음 속에서 놔둘 수 있었다. 이제 그 노래를 못 불러 끊어오르면 울분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었다.

7월 초순 우리의 모습이 예고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7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KBS TV2 해피선데이를 통해 우리의 오디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면서, 내 핸드폰, 아내의 핸드폰, 집 전화, 컴퓨터 이메일로 축하전화와 메시지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잘 봤다”, “멋있더라”, “너무 반가워”, “어쩜 니 남편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언니 그랜마 송 노래하는 장면 보고 너무 찡해서 눈물이 났어. 언니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하면서.” “조형, 뭘 노랠 그렇게 잘해? 만능 스포츠맨인줄은 알았지만 참 대단하네.” “두 분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이야.” “두분 눈물나게 아름다웠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하루 아침에 유명 연예인(?)이 됐다. 길을 걸어도, 지하철을 타도, 쇼핑을 해도 모두들 알아보고 반기워줬다. 방송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번 오디션에 도전했던 것은 백번 잘한 일이었고 그 성과도 내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노래란 음률으로 하는 것이다. 목과 입으로만은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없다. 온 몸이 동원되어야 깊은 소리 힘찬소리 끊고 높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기본적인 기교만으로는 듣는 이에게 어필하는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성악은 체력싸움이다. 늘어 갈수록 결국은 힘의 문제가 된다.

지금의 나로서는 앞으로 10년은 더 노래할 수 있도록 나는 노래 자체보다는 운동과 체력관리에 더욱 많은 시간을 내 삶의 시간표에 할당해 나갈 것이다.

함께 돌려다니니 와이리 좋노~



지난 8월5일 MBC사우회 동료 몇 사람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관광회사의 패키지 여행이어서 짜여진 일정에 따라 노보리베츠(登別)의 시옥계곡, 온천욕, 도야(洞爺)의 도야호수, 유람선승선, 소화산(昭和新山) 활화산(活火山), 오타루(小樽)의 운하, 가라스공예관, 삿보로(札幌)의 북해도 구 도청사, 시계탑 오도리(大通)공원등을 관광했다.

짧은 일정에 관광지를 축박하게 짜여져 장님 여행하듯 스치고 지나는 기분의 여행이라고 할까. 아무튼 여유있게 돌아볼 수 있는 일정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북해도, 우리나라(남한)의 경북도를 제외한 넓은 면적에 인구는 5백40만. 여름관광보다는 겨울의 눈축제 관광이 더 관심을 끄는 관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여행사,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북해도 삿보로(札幌)시 인구 1백83만명의 도시에서 1971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마다 2월에 치러지는 눈축제에 관광객 인파가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눈싸움으로 시작 된 눈축제가 지금은 북해도의 3대축제로 규모가 커졌고 매년 2월 2~3km에 이르는 오도리(大通)공원에서 치러진다고 했다.

눈썰매 행사를 위해 일본자위대 차량 6천7백대가 동원되어 제설작업을 돋고 있으며 강설량은 1m 이상이라고 한다.

이번 여행에서 북해도 구청사의 자료관을 둘러보는 가운데 북해도 농업대학(현 국립북해도대학) 초대 총장인 미국인 크라크씨가 퇴임하며 학생들에게 “학생들아 야망을 가져라”(Boys, Be



▶원편부터 이건식, 박기병(글쓴이), 윤여복, 김민식, 박준하 등 일선회 멤버. 1994년에 만든 북한산 등산 친목회다

Ambitious!)고 말하는 장면을 그린 한 폭의 그림이 감명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여행사 직원들 말에 따르면 2004년 한·일 공동으로 치러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한류열풍이 일본열도를 치

99년부터 함께 국내외여행 8번이나
지금은 북한산 등산대신 점심모임가져

면서 한국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것이다.

아직 일부 일본 극우파에서는 한류 열풍을 견제하는 시위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다. 어떻든 일본인의 봄에 밴 진절과 청결함은 배울점이다.

거리에 휴지통이 없다. 휴지, 쓰레기는 자기가

일선회(一禪會) 일본 북해도여행기

챙겨 집에다 버리는 것이며 건물 옥상에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에는 할 말 있게 했다.

이번 북해도 여행은 일선회(一禪會)의 모임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MBC재직 사우들이 체력단련과 친목도모를 위해 매주 북한산 등산을 하던 1994년 4월 북한산 등산로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 일선회(一禪寺) 이름을 따서 모임 이름을 정했다.

회원은 김민식 전 MBC전무·사우회 회장, 윤여복 전 MBC상무, 박준하 전 MBC프로덕션 상무, 이건식 전 MBC미술센터이사, 박기병 전 춘천 MBC사장 등이다. 일선회는 매주 주말 일요일 북한산 등산을 하며 우의를 돋독히하며 매달 3만원의 회비를 모아 기금을 조성해서 해외 및 국내 여행의 경비로 충당했다.

일부 회원의 건강 때문에 2009년부터는 등산을 하지 않고 매달 두차례 금요일 점심식사모임으로 바꾸었다.

해외여행은 1999년 3월25일에 태국 치앙마이에 골프 관광을 2004년 4월10일에는 중국 산동성(山東省)연태에 골프관광여행을 2007년 7월에는 일본 아오모리(青森) 아끼다(秋田)지방 관광여행을 그리고 이번에 일본 북해도 여행을 했다.

국내여행은 2003년 6월에 대구, 경주 문화유적지를 답사했고, 2005년 7월에는 울진 백암온천 삼척을 여행했다.

2008년 10월에는 금산, 대전, 유성온천을 다녀왔다. 2009년 4월에 부산 한려수도를 여행했다.

여행을 하면서 모임의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어 생활의 훈련을 느낄 수가 있고 더욱이 사우간의 우정이 굳건해져 모임의 보람이라 하겠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회원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십시오.

평생회비

윤재복(관리)7/20	오준상(기술)7/20	조항민(보도)7/26	배귀섭(보도)8/03
구본학(보도)8/17	이학귀(관리)8/30	전미경(편제)9/01	이성수(보도)10/04

연회비

| 7월 강효복(11) 김동오(11) 김순환(11) 김종창(11) 노홍식(11) 박성숙(10)
방남순(07~11) 백하현(11~15) 이상훈(관리,10) 이연현(11~15)
이재호(09~10) 이종수(11) 이한식(12) 조정구(10~13) 조춘희(11)
최준식(10~15) 하영석(09~11)

| 8월 강효복(12) 금기우(06~10) 김금봉(14) 김진호(11) 남의균(11) 배귀섭(10)
엄기영(11) 오승룡(11) 이동섭(09~11) 이종숙(11) 전미경(04~10) 전한호(11)
최근수(12)

| 9월 김태인(11) 연규철(12) 오명균(11) 오인환(10~13) 이재원(11)
김종연(12~13) 염재용(12) 조부성(09) 최양무(10~11) 최우철(11)
황진욱(10~11)

경조사향

결혼

윤상준(편제) 딸 7/23	윤건일(기술)차녀 8/20	황우성(관리)아들 9/03
최호철(관리)차녀 9/03	박종진(편제)장녀 9/17	문병화(기술)장남 9/17
이현구(편제)차남 9/17	장영준(보도)차남 9/24	조성식(업무)장남 10/01
김명수(편제)장남 10/01	김종현(기술)차녀 10/21	윤남현(대전)아들 10/22
신경우(관리)장녀 10/22	이봉수(편제)장녀 10/29	이하걸(관리)장녀 10/30
한박무(보도)차남 12/3		

부음

김상기(보도, 전여수수장)장인상 7/14
이채원(관리)장인상 7/24
신원호(기술)장인상 8/10
박연원(편제)장모상 9/04
정태성(보도)묘친상 9/23

박유명(관리)장모상 7/16
전미경(편제)시모상 8/09
정판식(부산)장모상 8/26
김태영(전주)묘친상 9/22

-나수성(미주)회원, 7월21일 미국 LA에서 노환으로 별세. 읊해 76세.
1964년 음악PD로 MBC에 입사해 '가요산맥' '10대가수쇼' '대학가요제' 등의 프로를 연출했으며 '나구호'라는 예명으로 배호가 부른 '안개속에 가버린 사람' '누가 울어'를 비롯해 조영남의 '마지막편지' 나훈아의 '헤어져도 사랑만은'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1980년 미국으로 이민갔다.

-서명규(기술)회원, 8월24일 자택에서 별세. 읊해 76세.
2005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으나 강한 의지로 극복하고 완쾌했다. 최근에는 부인의 치매로 고생하기도 했다. 1972년에 입사해 20년동안 대천, 충주, 서울MBC에서 라디오 기술발전에 기여했다.

경사

팔순 이종희(기술) 10/01	이월일(미주) 10/05	임택근(Ann) 11/11
김종대(대구) 11/20		
고회 강영석(기술) 10/08	하순봉(보도) 10/08	조지균(미주) 10/09
김점식(전주) 12/03	최영언(보도) 12/08	하영석(보도) 12/08
김봉성(업무) 12/12	박 육(관리) 12/12	이철호(전주) 12/15
함명철(보도) 12/20	이원호(관리) 12/24	임채현(보도) 12/24
회갑 신형중(미주) 10/10	정재순(기술) 11/01	김주배(편제) 11/28
이상혁(업무) 11/28	박용홍(관리) 12/02	전병우(관리) 12/13

올해 사우회 충년회 밤은 12월 15일!

퇴직후 1년안에 MBC사우회 가입해야

MBC를 퇴직한 사원이 MBC사우회에 입회하려면 퇴직후 1년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MBC를 퇴직한뒤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우회 입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 2월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2011년 1월1일 이후에 퇴직한 사우들은 퇴직후 1년이 지나면 사우회에 입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사우들에게는 경과기간을 두어 올해까지 사우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우들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사우들을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 가입을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주소변경

편제

김기덕 010-6486-3307
김병훈 대전시 동구 용운동258-5 대호빌라 가-201
김일수 010-9363-1200
김종창 010-4155-6638
노영환 02-790-6045 용산구 이태원1동 청화A 1-901
안호명 강서구 염창동 272-28 우성A 301-1005
장기우 은평구 증산동 2-1 백련빌라 101호
장명호 010-3714-4433
전진권 동대문구 장안동 687 신성미소지움 104-1603
최정숙 010-7931-7741

보도

고성광 010-8718-5891
김창식 031-713-928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5-4 두산위브제니스 A-1701
이성해 010-5315-0123
정영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989 한성필하우스 501-201
정 진 010-9052-8338
편일평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녹원마을 새천년그랑빌 511-802

Ann

방남순 010-5233-6795 02-3471-9996
송재의 통영시 도산면 저산유촌길 37
조석영 010-2246-3518

기술

김학윤 관악구 신림4동 526-17 (201호)
이영철 010-5204-1468
안영제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134(화원)
윤상호 010-5283-3734
황진우 010-9105-1328
박종규 010-8910-2267

관리

김영금 노원구 하계동 284 한신A 4-810
오영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2041 에이스10차 101-1306
황의철 010-6302-6201
윤풍기 010-4746-7220
이용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407-2
이원호 010-5386-3956
이은춘 010-9797-4928 동작구 흑석동 센트레빌 104-1101
정준모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1093 쌍용스윗닷홈 105-1901
최호철 010-2643 6685
황우성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A 106-2301

업무

이운하 010-9085-2743 02-2273-9907
송파구방이동41-3 지역사회교육회관(3층)선바이오투

대전

성창용 양천구 신정3동1321 신정이펜하우스 110-202

대구

손영조 010-2801-4244

전주

이양휘 010-9860-5217

신규입회

07/20 尹在福(관리) 010-8955-3873, 070-8281-2355 동작구 상도동 414 진왕A 102-1109
07/22 吳俊相(기술) 010-9105-2347, 02-455-8523 광진구 광장동 383 워커힐빌리지 102-102
07/26 趙恒昊(보도) 010-5287-1589, 031-903-0589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604-901
08/17 具本鶴(보도) 010-8578-7862, 02-2147-0555 송파구 잠실3동 레이크팰리스A 108-1102
08/27 李學貴(관리) 010-9274-6050, 02-2662-8921 양천구 신월6동 592-15
09/19 崔宇哲(ANN) 010-8955-3781, 031-716-950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야마을 308-302
10/04 李誠洙(보도) 010-5249-9318, 02-6268-0909 은평구 불광1동638 북한산래미안 102-1002
10/06 金聖洙(보도) 010-9274-6150 031-924-878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804-1102

연회비 장기 미납자 경조비 지급 정지

연회비 장기 미납으로 경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이 10월15일 현재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처에 따르면 5년이상 연회비를 내지않아 올해 경조비 지급이 정지된 회원은 별세회원 3명을 비롯해서 팔순 5명, 고희 6명, 회갑 4명 그리고 시모상 1명등 모두 19명이다.

사무처는 올 2월25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회비 장기 미납자에 대한 경조비 지급정지안이 의결된 뒤 5년이상 연회비 미납자에게 여러자례 안내장을 보내 연회비 납부를 독려한바 있다.

(사우회 경조규정 제3조 3항 : 연회비를 5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 되지만, 경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비를 납부한 이후에 발생되는 경조비부터 지급한다.)

정사 50주년 기획
인사동스토리



김 용 빈
사우회 이사

MBC 탄생신화 밭상지 인사동 사옥 주역 여행하세요

종로구 인사동 15번지 동일가구 건물을 끼고 낙원동 시장쪽으로 보면 간판도 없는 선술집 옆의 조그만 문이 있다. 이곳이 문화방송의 정문이다.

1. 2층은 동일가구에서 쓰고 있으며 3. 4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옥상을 증축하여 5층에 방송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방송 송출을 위한 주조정실이 위치하여 3개층을 임대 사용하고 있다.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에는 경비실과 안내실을 겸한 반평 정도 한사람이 겨우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출퇴근 확인, 직원면회, 방송국 출연자 모두가 확인이 되어 어울림이 가능한 통제 구역의 관문이었다.

인사동 15번지 문화방송 건물을 다시 찾아서 방문을 해보자 2층 경비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 3층 입구에서 좌측으로 제일먼저 보이는 부서가 보도부. 조금 복도를 가면 정면에 총무부가 있고, 복도를 돌아서 들어가면 상무, 전무, 사장실과 좌측으로 회장실이 있는 곳이다.

사무실 한쪽에 위치한 계단은 보도국 방송 제작을 편집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계단 밑에는 회사 인쇄물을 만드는 발간실이 위치하고 있다.

계단을 다시 올라 4층으로 가면 창

가난하지만 즐겁게 일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문 쪽 복도를 끼고 들어와 좌측으로 굽으면서 첫 번째 문이 감사실이 있고 그 다음이 음악과 있는 곳, 3층 보도부에서 연결되는 계단이 음반과 녹음테잎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그 계단을 이용하여 음반을 정리해 놓고 그 밀 공간을 이용한 것이 중계

개방 장비 장고와 정비를 하는 창고

로 사용하는 곳이다.

복도에서 우측에는 방송부가 위치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편성, 기술, 아나운서실과 회장실이 있다.

5층은 옥상을 개조하여 지붕을 증축하면서 스튜디오를 만든 곳으로 입구는 출연자의 접점을 위하여 복도가 조금 넓다.

좌측으로 B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우측으로는 기술 스텝의 대기실 겸 출연자 대기실과 기기실이 있고,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A 부스와 주조정실이 나온다.

복도와의 사이를 이용한 공간은 방송국 전체의 유일한 공간이다. 64년 일사당시 이곳은 우리 신입사원의 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대기실로 활용되다가 광주, 대전, 진주, 칠곡 이 개국한 후 지방문 방송을 복사하는 복사실이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통제구역으로 사원들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기도 하였다.

B 스튜디오를 지나면 기술과장실과 회장실이 나오고 복도에서 우측으로 굽어서 창가에서 우측으로는 교환실과 주조정실 B 부스와 주조정실 근무자의 숙직실이 있고, 다시 좌측복도로 굽어 창을 끼고 걸어가면 A 스튜디오가 나온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인사동 15번지의 방송국 전체를 설명한 것이다.

공개방송과 인사동 지계꾼 할아버지
요즈음 라디오 방송의 공개 방송을 위하여 장비를 운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인사동 시절의 장

비 운반은 지금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방송의 공개홀이 종로 예식장 신관 2층 제일 큰 흘이다. 인사동 본사에서 종로 예식장까지 장비를 운반하는 방법은 내가 입사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운반책 “니어카”를 불러서 문문에서 종로 예식장 신관 앞까지 운반하면 말단 직원인 우리들이 들어서 운반하여 설치작업을 하고 철수도 반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게를 진 할아버지가 오셔서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다. 자신이 하면 회사 창고부터 예식장 2층 기기실 까지 운반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시험 삼아 한번 하자고 선배들과 합의하여 할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공개방송 1시간 전에 정확하게 정문에 대기하고 쌀 한가마 무게 80KG 정도를 지고 1KM정도 되는 종로 예식장까지 한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갔다.

처음에는 매우 걱정을 했다 노인 할아버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사고 발생하면 장비의 파손 문제 또는 보상 문제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 두려워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더 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맞게 달라고 했다.

선배들과의 의논끝에 지게 할아버지는 문화방송 전속 공개장비 운반으로 지정을 받았다.

물론 회사에서 지정한 전문 지정 운반 담당은 아니지만 공개반 우리는 마음 든든한 할아버지를 믿고 같이 생활을 했다.

몇 년 동안 말성 한번 없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정확하게 약속장소에 정확하게 운반하신 그 고마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처음 운반 할 때의 요금이 500원하다가 1000원으로 인상하다가 천오백원까지 인상했었다.

그것도 회사가 정동으로 이사를 하면

서 할아버지는 고정된 수입원을 잃게 되는 할아버지의 아쉬움을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인사동의 생활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항상 만족한 일의 보람을 찾아서 누구보다 먼저 일을 찾아서하는 전통을 갖고 있어, 쉬는 것도 자유로 일하는 것도 자유로 서로 믿고 존경하면서 서로돕고 위로하면서 고락을 함께 하며 생활을 했다.

특히 지방의 공개방송을 할 경우는 교통편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임해 공개방송의 경우는 비행기를 대체하여 출연자와 모든 스텝이 같이 출발하여 공개방송을 끝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저녁 11시경에 서울역에 집합하여 기차 힌칸을 대절하여 밤새워 현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기술적 사원들은 역에서부터 방송 현장까지의 장비 운반에 제일 큰 걱정거리다 인사동의 지게 할아버지가 있으면 간단하지만 역에서 현장까지 많은 장비를 운반하는데는 각역마다 붉은 모자 테두리에 검정 유니폼을 입은 “구루마” 아저씨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서울역에 도착하면 동쪽에 있는 화물 취급장소에 가서 섭외를 하여 흙에 내려져 있는 장비를 신고 서울역을 나와 영천교 쪽 차도로 나와 남대문 시장앞을 돌아서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미도파, 명동앞을 지나 조홍은행을 지나 화신앞과 서울 예식장을 지나서 인사동으로 들어간다.

회사 앞 도로변에 장비를 내리면 그곳에서 4층까지는 우리 차례가 된다.

스튜디오 한 귀퉁이에서 날밤을 새우고 다음날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한심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시간외 수당도 없고 철야근무 수당도 없이 봉급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불만이 있을 수도 없었다.

회원동정



정홍보(보도)

서울대 초빙교수
전 춘진MBC사장.
8월1일 방송문화진흥회 석좌교수에 선정됐다. 방문전 석좌교수는 서울대에 상근 형태로 근무하며 2학기부터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로 중급저널리즘 강의하고 있다.



오효진(보도)

충북대에서 문학박사학위
전 천원군수. 8월24일 충북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정치적 압력 대응 양상’, 석사학위를 받은지 36년만이다.



서정훈(보도)

한세대 초빙교수
전 여수MBC사장.
9월1일부터 한세대학교 초빙교수겸 글로벌 러시아연구센터장으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종건(관리)

SBS미디어렙 추진단장

전 OBS부사장.

7월25일 SBS홀딩스 사하 미디어렙 추진단장으로 선임됐다. 미디어렙 추진단은 정부의 미디어렙법이 확정되면 추후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채원(관리)

불교방송사장 취임

전 강릉MBC사장.

9월26일에 열린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사장은 28일 취임식을 가졌으며 임기는 2015년까지 4년이다.



김종오(보도)

서울지역으로 송신확대

OBS사장-전대구MBC사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외 재송신 승인에 따라 8월 1일부터 서울 어디서나 OBS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사장은 이에따라 OBS 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 2,400만 시청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유혜자(편제)

음악에세이 ‘음악의 에스프레시보’, 출간 9월30일 음악에세이집 ‘음악의 에스프레시보’를 출간했다. 유혜원은 올해 조경희 수필문학상을 수상한데 이어 음악에세이로는 4번째이자 통산 14권째 수필집을 출간함으로써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박홍영(편제)

세명대 정교수 부임

8월 25일 세명대 학교 방송연예학과 정교수 부임, 9월24일 조수미 데뷔 25주년 기념콘서트 연출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특설무대), 2011제야콘서트 연출 진행 중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김상욱(편제)

“외워서 남주는 유머” 책출간 및 전시회 (사)운수미술회 회장
재미있는 유머를 모아 “외워서 남주는 유머”를 출간했다. 개그맨 전유성씨가 추천사를 썼다. 또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종로구 공평동 “공평화방”에서 MBC 본사가 주최하고 운수미술회가 주관하는 미술작품전 “마음으로 봐주세요”를 갖는다.

목포 MBC



목포 MBC 2011년 연중캠페인

2011 세계속의 남도
남도에서 푸른 활력을...

성공기원

2011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2011년 10월 14일(금) ~ 16일(일)

<http://www.koreangp.kr>



F1 2011 KOREAN GRAND PRIX